

통계청이 9일 발표한 '4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는 소비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기대지수가 3개월째 하락해 기준선인 100선 아래로 뚫고 내려올 태세인데다 소비자평가지수도 8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심리 위축이 한국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곧바로 경기하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소비심리 3개월째 하락

유가·환율 불안... 하강국면 우려

◇소비자기대지수 100선 붕괴 초입기=소비자기대지수가 100.6으로 전월의 103.4보다 2.8포인트나 급락했다는 점이 이번 통계에서 주목됐다.

장은 "기대지수는 실물경기에 비해 3~4개월 선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기하강이 뚜렷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중에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원·달러 환율이 920원대까지 떨어지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기하강국면이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경기하강국면이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

◇전문가들 소비경기 본격 하강여부 의견 갈라져=전문가들은 고유가나 환율하락 등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은?

유가 등 대외변수 향방 관련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경기소환의 일시적인 국면으로 끝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가 등 대외변수의 영향이 큰 만큼 이들 변수의 향방이 관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거시경제팀장은 "고용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다 고유가 및 환율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확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소비심리 위축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별 소비자 기대·평가 지수 추이



하강국면 예상보다 가파를 수도

불규칙한 요인들을 제거한 계절조정 기대지수는 96.6으로 이미 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6월 96.5로 저점에 도달한 계절조정 기대지수는 7월 97.8, 8월 99.0, 9월 100.7, 10월 104.4, 11월 105.7, 12월 106.4로 상승했다.

◇경기 하강하나=정창호 통계청 통계분석과

한국 물가경쟁력 크게 떨어져

미국의 91% 수준·가격 경쟁력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물가 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구매력을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물가는 지난 2월에 91로 계산됐다.

미국에서 100원에 팔리는 물건이 한국에서는 91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 물가는 지난 2000년 12월의 58보다 56.9%나 상승한 것이다. 한국의 물가는 12월 기준으로 2000년 58, 2001년 63, 2002년 68, 2003년 70, 2004년 84였으며 지난 2월에는 90선을 넘어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수준이 높아진

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비해 물가수준이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나라는 캐나다(109), 호주(105), 뉴질랜드(103), 벨기에(106), 이탈리아(102), 룩셈부르크(108), 네덜란드(107) 등이다.

물가수준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163)에 이르렀다.

또 노르웨이(142), 덴마크·스위스(각 138), 아일랜드(130), 일본(124)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73), 체코·슬로바키아(각 61), 그리스(88), 헝가리·폴란드(각 62), 포르투갈(80), 터키(74) 등이다.



축구 제품 다 모였네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9일 직원들이 축구 이미지로 디자인된 머그, 접시, 공기 등 도자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독일 월드컵 공식 머그컵을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6월1일까지

탈루혐의 24,000명 특별관리

호남 23만6천명 대상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오는 6월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7만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이 늘어났다"면서 "내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절차=작년 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퇴직·양도·산입소득이 있는 277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광주, 전남·북 지역 신고대상은 23만6천명으로, 지난해 24만4천명에 비해 8천명(3.7%)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통해 전자 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우편신고는 6월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것=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됐다. 특히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만4천명 개별관리=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2만4천명에 달하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탈세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났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계산,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혐의가 포착된 납세자들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코스닥 우회상장 기업 요건 미달땀 상장 폐지

금감위, 개선안 내달부터 시행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비상장 기업이 신규 상장요건에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상장폐지 등의 초강경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등의 기존 합법성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불건전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요건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정밀 심사를 벌

어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선물거래소가 우회상장 시점에 판단하게 되며 요건에 미달할 경우 우회상장후 상장기업에 상장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이 신규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란 표시를 2년간 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기업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투자자들이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사내총괄 변동사항 등 우회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북미시장 고민 환율하락 여파 공략 위기

현대자동차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여파로 북미시장 공략에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형차 베르나니의 가격 정책.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작년 말 미국에서 1만3천255달러에 팔던 베르나니(수출용 액센트)는 올해 들어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난 3월 가격을 4.5%(590달러) 올려 1만3천845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때마침 도요타가 3월 소형차 예코 후속으로 아리스를 베르나니보다 낮은 1만3천130달러에 내놓으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베르나니의 판매가 급감할 조짐을 보였다. 현대차는 결국 올렸던 가격보다 훨씬 많은 1천달러의 인센티브를 딜러에게 주며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현대차 북미시장 고민 환율하락 여파 공략 위기

가구당 보험 5개 들었다

국내에서 각 가구에서는 5개 정도의 보험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9일 전국 1천200가구의 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구당 4.9개의 보험(생명보험 3.5개, 손해보험 1.4개)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과거 조사때와 비교하면 2003년 4.4개, 2004년과 2005년 각각 4.7개보다 많이 늘었다.

6개 이상 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5개(36.9%), 1~2개(20%) 등의 순이었다. 보험 가입률은 생명보험 88.3%, 손해보험 79.8%로 이를 모두 포함한 가입률은 94.7%였고 연간 납입보험료는 413만원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 소식/

DDI 부문 4년 연속 세계 1위

삼성전자는 각종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DDI(Display Driver IC·디스플레이구동칩) 부문에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가트너 데이터퀘스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DDI로 13억7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8.1%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매출 9억6천만달러로 점유율 12.8%인 NEC였고 3위는 11.8%를 차지한 르네사스, 4위는 9.5%의 노바텍 등이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D램과 플래시에 이어 2004년에는 DDI의 매출액도 10억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 부분 시험가동

올해 연말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부분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기아차 관계자는 9일 "이달 초부터 완공된 일부 공정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기아차는 오는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4월 착공한 슬로바키아 공장은 연산 30만대 규모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신규 개발한 1천400~2천cc급 준중형 세단 ED(프로젝트명)가 첫 생산차종으로 결정됐다.

인문계 대학생 인턴 1천명 모집

삼성전자는 올해 여름방학중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실무자식을 익힐 인문계 대학생 인턴 1천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인문계 대학 4학년이면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인턴과정에 합격한 학생들은 여름방학중 5주간 현장실습을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제상과 구체적인 전문지식에 관해 체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삼성은 인턴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대1로 선배 지도사원을 지정해 업무전반을 가르칠 예정이며 인턴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한 학생들이 앞으로 실습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삼성 인턴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www.dearsamsung.c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멘토링' 통해 직원교육 역량 집중

GS칼텍스가 탠투맨 방식의 직원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회사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동료 직원이나 후배를 지도하고 조언해줌으로써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멘토링'(Mentoring)제도를 운영중이다.

GS칼텍스는 올해 초 도입한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입사 1년 미만 신규인사자의 적응력 제고 및 팀장 후보자 리더십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정유업종 특성상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직문화에 여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쓰비시레이온사와 합작법인

호남석유화학은 일본 미쓰비시레이온사와 MMA(메틸메타크릴레이트),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가칭 대산 MMA) 설립 조인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대산에 2008년까지 연산 9만 규모의 MMA공장과 연산 4만 규모의 PMMA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MMA는 전자, 자동차 부품, 광섬유, 레이저디스크 등에 사용되는 PMMA의 원료다.

호남석화는 "MMA와 PMMA 생산 및 판매 부분의 아시아 1위 기업인 미쓰비시레이온사와 합작을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카타르항공과 인천~도하 공동운항

아시아나항공은 9일부터 카타르항공과 코드셰어를 통해 인천-도하 노선에 취항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매주 화, 목, 일요일 주 3회 운항하고 비행시간은 12시간 55분이다.

두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마일리지의 상호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아시아나는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는 현재 에어캐나다와 전일공(ANA)항공, 싱가포르항공 등과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이번 카타르항공과의 공동운항을 통해 총 14개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하게 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Job Name, Department, Salary/Grade, Range,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 Includes HRN, 유니테크시스템, 한양종합검사, 엠엘아트, 태정산업, 에이에이씨엔디, 제이엔비컨설팅, 기아자동차대리점, 그린텔, 포도애셋, 드림랜드, 광주여자대학교.